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보경* · 김혜경† · 이아영 · 김태우 · 박재희 · 김동욱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8월 6일 접수: 2018년 9월 5일 수정: 2018년 9월 12일 채택)

The Eff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Bo Kyoung Kim* · Hey-Kyoung Kim† · Ah Young Lee
Tae Woo Kim · Jae Hee Park · Dong UK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August 6, 2018; Revised September 5, 2018; Accepted September 12, 2018)

요약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자료와 데이트 폭력 예방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한 200명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였고, 배부된 225부 중 2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의식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4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_{adj}=.36(.32)$ 으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6%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폭력유무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 대학생의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통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주제어 : 대학생,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 양성평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presents basic data for helping healthy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Chungcheong cities from April 28 to May 12, 2018. of 225 copie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 total of 200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k777@jwu.ac.kr)

As a result,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f university students were affected by the Equality of both sexes and Self-esteem, and the largest effect was the Violent experience. In conclusion, it is need to development program and counseling with considering healthy intimate relationship and right gender-role for improving adaption of university life.

Keywords : University student, Self-esteem, Dating violence, Perception, Equality of Both sexe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에게서 만연해있으며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트폭력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나누어 행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78.8%~93.4%로 나타났고, 신체적 데이트 폭력은 31.1%~63.0%가 일어나고 있다[1-3]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그에 따른 후유증을 갖게 되고 이는 가볍게 생각하며 넘길 문제가 아님을 선행연구들은 중요시하였다[4].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을 조사한 종단연구[5]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5년 뒤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데이트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과한 음주, 우울증상, 자살사고, 반사회 행동과 마리화나 사용이 더불어 증가하였고 데이트 폭력 피해 또한 증가하였음을 보고함으로써,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후유증들이 나타나며 반복된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 자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육체적 행동만으로 인식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꼭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비용을 내도록 강요한다든지, 심한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미묘하게 느껴지는 행동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인식의 문제는 애인과의 데이트 속에서 미묘한 행동으로 받은 피해 사실들을 사랑이란 단어로 포장하여 합리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하려고 든다. 합리화를 해야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즉 애인을 감싸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가해자들이 피해를 입힌 후

단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비는 모습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또한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하더라도 단순한 '사랑싸움' 으로 치부해 버리기에 피해자들이 더욱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인지조차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6].

이렇듯 현재 계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왜 인식하지 못하며 그 인식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로 언어적·신체적 폭력의 발생 비율과 폭력 후 관계 변화 등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타 이러한 이유로 아직 국내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부족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폭력'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할뿐더러, 특징적인 유형의 폭력, 특히 '성폭력'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 라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밑바닥에는 가부장적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은 여성에게 남성을 보조하는 순종적인 여성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해야 했던 환경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7]. 어려웠던 사회진출 속에서 당연히 여성들에게는 남녀평등사상이 옹계

심어질 수 없는 환경임에 틀림없었으며,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134개국 가운데 104위를 차지한 성 격차지수를 보면 양성평등 의식이 아직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7].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대한민국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여성들은 본인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인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받고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인사이의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낮은 자아존중감’ 이라고 생각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확신이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가리킨다[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생각과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며, 조금이나마 인식했다라도 본인의 생각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 선행연구결과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으며 이를 제제할 공적 제도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대학생의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통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8년 4월 28

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충청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00명을 편의표집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213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익명성 보장, 설문지 응답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과 참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점,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그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문항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만든 검사지 남녀 평등 의식 검사[10]에서 4가지 영역별 15문항 중 10문항을 골라 총 40문항으로 이정대[11]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중 30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 평등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25$ 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2]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를 김경연[13]이 번역하고 송민수[14]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항상 그렇다’5점으로 부여하고 역문항은 반점수화 하여 합산을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경연[13]은 Cronbach’s $\alpha=0.80$ 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713$ 이다.

데이트 폭력 인식에 대한 문항은 Straus가 제작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없다’, ‘1회’, ‘2회’, ‘3~4회’, ‘5회 이상’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23$ 이다.

2.4.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프

로그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데이트폭력 인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21.51세이며, 여성이 82.9%이었고, 남성은 17.1%이었다. 1학년이 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학년 35.0%, 4학년 17.5%, 3학년 6.5% 순이었다. 교제대상과의 나이차이가 0-2세인 경우가 79.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5세 35명17.5%, 5세이상은 3.5%이었다.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5%, 없는 경우는 87.5%이었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는 13.0%, 피해를 입힌 경우가 2.0%이었다. 성 평등 인식에서는 남녀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야 한다 43.0%,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관계를 만들어야한다 38.0%, 여성 쪽에서 종전의 소극성을 버려야한다 7.0%, 남성 쪽에서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 6.0%의 순이었으며 남녀역할 인식에서는 남녀역할 구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7.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할 일이 구분되어야한다 18.0%, 모르겠다 17.5%, 사회전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7.5% 순이었다.

3.2. 대상자의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데이트폭력 인식 정도

대상자의 양성평등 인식, 자아존중감, 데이트폭력 인식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데이트 폭력 인식 2.37±.81점은 20·30대 성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16]에서 보고한 4.21±.490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점

수였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7]에서는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1.99±.70으로 '그럴 수 없다'에 가깝지만, 데이트 폭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8.5%, 36.0%, 37.4% ,54.0%로 비교적 높아 데이트 폭력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은 1.97±.54점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인 연구[18]에서는 남자 3.54±.54, 여자 4.17±.47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비교해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건, 복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결과, 보수적 성역할 규범 2.63±.62, 진보적 성역할 규범 2.70±.06으로 본 연구의 양성평등의식보다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2.92±.35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결과[20] 3.91±0.47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나이차이(F=3.71 p=.013), 간섭유무(t=5.02, p=.000), 분노 표출(t=3.94, p=.000), 폭력경험(t=5.84, p=.000)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나이차이가 많을수록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이 간섭을 했고, 분노표출을 했던 경우일수록 데이트 폭력인식이 높았다. 또한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인식은 나이차이(F=3.71 p=.013), 간섭유무(t=5.02, p=.000), 분노 표출(t=3.94, p=.000), 폭력경험(t=5.84, p=.000)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차이가 많을수록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이 간섭을 했고, 분노표출을 했던 경우일수록 데이트 폭력 인식이 높았다. 또한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데이트 폭력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1]결과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0)

	Categories	N(%)
Gender	Male	58(29.0)
	Female	142(71.0)
Grade (Age mean 21.51)	Grade 1	82(41.0)
	Grade 2	70(35.0)
	Grade 3	13(6.5)
	Grade 4	35(17.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4(12.0)
Major	Science and Engineering	27(13.5)
	Aviation	6(3.0)
	Health Science	122(61.0)
	Art and Sports	21(10.5)
Difference in age	Less than 3years	158(79.0)
	Over 3years-less than 5years	35(17.5)
	more than 5years	7(3.5)
Presence of interference	Yes	28(14.0)
	No	172(86.0)
Expression of anger	Yes	36(18.0)
	No	164(82.0)
Violent experience	Yes	25(12.5)
	No	175(87.5)
Presence of damage	Do damage	4(2.0)
	Suffer damage	20(13.0)
Maintenance of relationship after Violent experience	Yes	4(2.0)
	No	20(10.0)
Duration of relationship after violent experience	1Month-less than 3months	9(4.5)
	Over 3months-less than 6months	7(3.5)
	Over 6months-less than 12months	2(1.0)
	Over 12month-less than 18months	4(2.0)
	Over 18months-less than 24months	2(1.0)
Perception of equality of both sexes	Men should yield their vested rights	12(6.0)
	Women should abandon their present passiveness	25(12.5)
	We should reduce the cultural gap between men and women	88(43.0)
	We need to develop a more active real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77(38.5)
Perception of gender-role	The roles of men and women should be distinguished	40(20.0)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men and women's roles	118(59.0)
	We must follow the social trend	15(7.5)
	I don't know	27(13.5)

Table 2. Equality of both sexes, Self-esteem o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Variables	M±SD	Range
Equality of both sexes	1.97±.54	1-5
Self-esteem	2.92±.35	1-5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2.37±.81	1-5

(N=200)

Table 3. Differences of Equality of both sexes, Self-esteem and Perception on dating violent by using pattern of University students. (N=200)

Categories	Equality of both sexes		Self-esteem		Perception on dating violent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2.15±.54	.02	2.91±.41	.68	2.52±.69	1.67
	Female	1.89±.52	(.868)	2.93±.32	(.409)	2.31±.85	(.096)
Grade (Age mean 21.51)	Grade 1	2.01±.56		2.94±.26		2.54±.81	
	Grade 2	1.83±.39	4.55	2.89±.36	.58	2.28±.77	2.60
	Grade 3	2.42±.79	(.004)	3.02±.62	(.623)	2.42±1.07	(.053)
	Grade 4	2.02±.59		2.92±.38		2.12±.75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7±.60		2.98±.38		2.49±.86	
	Science and Engineering	1.91±.47	.77	2.92±.28	.49	2.47±.64	1.63
	Aviation	2.06±.88	(.541)	3.02±.68	(.743)	3.05±.91	(.168)
	Health Science	2.02±.55		2.90±.35		2.28±.81	
Difference in age	Art and Sports	1.85±.40		2.96±.24		2.42±.93	
	Less than 3years	1.95±.52		2.90±.34		2.30±.79	
	Over 3years-less than 5years	1.99±.62	1.14	2.96±.41	1.87	2.52±.86	3.71
Presence of interference	more than 5years	2.27±.70	(.321)	3.14±.23	(.156)	3.24±.59	(.013)
	Yes	2.23±.83	4.87	3.01±.48	1.51	3.05±.80	5.02
Expression of anger	No	2.03±.46	(.036)	2.91±.32	(.050)	2.26±.76	(<.001)
	Yes	1.98±.68	5.15	2.95±.56	.46	2.84±.92	3.94
Violent experience	No	1.97±.51	(.024)	2.92±.28	(.001)	2.27±.75	(<.001)
	Yes	2.14±.71	6.12	3.04±.49	6.53	3.20±.71	5.84
Presence of damage	No	1.94±.51	(.014)	2.90±.32	(.011)	2.25±.76	(<.001)
	Do damage	2.89±.68	.02	3.20±.81	.64	3.05±.95	-.498
Maintenance of relationship after Violent experience	Suffer damage	2.03±.65	(.871)	3.02±.44	(.126)	3.25±.70	(.623)
	Yes	2.03±.55	.76	3.08±.51	.11	2.93±.66	-.857
	No	2.20±.76	(.392)	3.05±.51	(.931)	3.27±.74	(.401)

Categories	Equality of both sexes		Self-esteem		Perception on dating violent		
	M±SD	t/F(p)	M±SD	t/F(p)	M±SD	t/F(p)	
Duration of relationship after violent experience	1Month-less than 3months	2.06±.67		3.00±.32		3.31±.72	
	Over 3months-less than 6months	2.58±.57		3.10±.62		2.96±.81	
	Over 6months-less than 12months	1.76±.51	.90 (.482)	2.83±.35	.48 (.745)	3.55±.70	.351 (.840)
	Over 12month-less than 18months	2.10±1.17		3.33±.73		3.34±.81	
	Over 18months-less than 24months	1.78±.25		2.83±.64		3.13±.85	
Perception of equality of both sexes	Men should yield their vested rights	1.94±.71		3.05±.46		2.47±.90	
	Women should abandon their present passiveness	1.89±.55		2.85±.29		2.42±.80	
	We should reduce the cultural gap between men and women	2.04±.58	1.10 (.348)	2.95±.35	1.13 (.337)	2.39±.90	.241 (.868)
	We need to develop a more activ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1.90±.46		2.89±.33		2.31±.71	
Perception of gender-role	The roles of men and women should be distinguished	2.08±.54		2.92±.38		2.60±.83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men and women's roles	1.84±.48	5.35 (.001)	2.92±.31	.09 (.961)	2.24±.74	2.550 (.041)
	We must follow the social trend	2.09±.65		2.97±.46		2.46±.99	
	I don't know	2.20±.58		2.93±.39		2.57±.95	

비해 폭력의 위험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신체적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은 3학년이 가장 높았고, 간접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분노표출 및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분노표출경험이 있고, 폭력경험은 없는 경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이 지각하는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데이트 폭력 인식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

학생의 양성평등 의식($r=.396, p<.001$)과 데이트 폭력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r=.275, p<.001$)과 데이트 폭력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며[20], 데이트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폭력 인식도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200)

Variables	Equality of both sexes	Self-esteem
	r(p)	
Self-esteem	.309(<.001)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396(<.001)	.275(<.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 on dating viol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N=200)

Variable	B	SE	β	t	P	R2	Adjusted R2	F(p)
Constant	94.07	2.49		37.75	.000			
Difference in age	Less than 3years							
	Over 3years-less than 5years	.11	.12	.05	.91	.363		
	More than 5years	.51	.34	.08	1.49	.137		
Expression of anger	Yes					.36	.32	9.41 (<.001)
	No	-.11	.15	-.05	-.72			
Violent experience	Yes							
	No	.54	.18	.22	2.87			
Presence of interference	Yes							
	No	-.46	.15	-.20	-3.08			
Equality of both sexes	.38	.10	.26	3.86	<.001			
Self-esteem	.29	.14	.12	2.01	.045			

3.5.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 정도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폭력경험 유무, 간섭유무 및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을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2.328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097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246~.935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는 1.070~4.064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 폭력경험과 간섭유무를 예측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의식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4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_{adj} . $R^2=.36(.32)$ 으로 회귀모형은 대학생활 적응 총 변화량의 36%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폭력 유무($B=.54, p<.005$), 양성평등의식($B=.38, p<.001$), 자아존중감($B=.29, p=.045$), 간섭유무($B=-.46, p=.002$)순이었다. 이는 Table 5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폭력 인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인식은 나이차이, 간섭유무, 분노 표출, 폭력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양성평등 의식과 데이트 폭력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 인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양의 상관관계들이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양성평등 의식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폭력경험, 간섭유무, 양성평등 의식,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은 양성평등 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중에서도 폭력경험이 가장 영향력이 컸으므로 대학생의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통한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을 교과과정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성평등 인식, 자아존중감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셋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이성교제 및 올바른 남녀 성역할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W. Y. Cho., K. H. Kim Park,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Dating Violence Moder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49, pp.71-96, (2015).
2. Y. J. Ha., M. K. Seo.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Vol.30, No.4, pp.79-103, (2014).
3. Shorey, R. C., Meltzer, C., & Cornelius T.L. "Motivations for self-defensive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Vol.25, No.5, pp.662-676, (2010).
4. Kaukinen, C.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rauma Violence Abuse*, Vol.15, No.4, pp.283-296, (2014).
5.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Vol.131, No.1, pp.71-78, (2013).
6. Polinlove, *Violence by the name of Love*, <http://polinlove.tistory.com/>. (Updated on 2018).
7. S. K. Choi. "A study of teaching programs for the gender equality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2).
8. M. 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Self-Esteem, Sexual Consciousness, and Self-Appearanc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2014).
9. S. I.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x 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 the cente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2005).
10. Y. H. Kim., S. Y. Lee. For young people. "The korean gender equality examinatio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ol.250, No.5(1), pp.1-167, (2002).
11. J. D. Lee. "A study on middle school

- studen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12.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 W, H. freman. (1966).
 13. K. Y. Kim. "Before the 19th century and a half li soil the phase of the political door of the zhao's hom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1997)
 14. M. S. Song. "The effect of reality-therapy group counseling on the internal control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University. (2002)
 16. Y. J. Ha., "A study on perception and coping of dating violence-Focusing on dating violence vignett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university, (2014).
 17. S. Y. Yoo., "A study on the factor mediating the link between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 -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0).
 18. I. S. Oh., "A study on gender equality awarenes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Ju University, (2012).
 19. J. O. Song., "The influences of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discrimination by public service worker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on their empowerment and on their service quality",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 Jeon University, (2006).
 20. W. K. Nam.. "A Study on Experiences and Factors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Unmarried Men in Busan",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2008).
 21. Witte, T. H. and Kendra, R. "Risk recognit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25, No.12, pp.2199-2216, (2010).